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과 직무 스트레스가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선자¹, 김지원^{2*}

¹동남권원자력의학원, ²구미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and Occupational Stress o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Clinical Nurses

Seon-Ja Park¹, Jee-Won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²College of Nursing, Gum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전문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 광역시 3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17명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감만족은 인문학적 소양과는 양의 상관관계, 소진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진은 인문학적 소양과는 음의 상관관계, 직무 스트레스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직무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진, 간호만족, 임상경력으로 나타났으며 48.5%의 설명력을 보였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공감만족,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간호만족, 기혼,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68.8%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과 급여로 나타났으며 21.9%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소진은 공감만족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진을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and occupational stress on th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clinical nurses. The data from 217 survey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three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a metropolitan area from Jun 3 to 14, 2019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Statistics 23.0 program. The finding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mpassion satisfaction and humanistic knowledge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urnout. Burnou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humanistic knowledge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ccupational stress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Secondary traumatic stres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ccupational stress. Burnout, satisfaction for nursing, and working period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compassion satisfaction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8.5%. Compassion satisfaction, secondary traumatic stress, satisfaction for nursing, marriage, and occupational stress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burnout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68.8%. Burnout and income were significant variables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1.9%. Burnout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variable of not only compassion satisfaction, but also compassion satisfaction.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make efforts to prevent burnout.

Keywords : Humanistic Knowledge, Occupational Stress, Compassion Satisfaction, Burnout, Secondary Traumatic Stress

*Corresponding Author : Jee-Won Kim(Gumi Univ.)

email: pleasure_jw@naver.com

Received July 30, 2019

Revised September 3, 2019

Accepted November 1, 2019

Published November 30,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관리 전문가는 근무 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특히 간호사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

직무 스트레스란, 개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환경요소와 상호작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 신체적 불균형 상태를 말하며, 작업환경에서 지각된 조건과 사건의 결과로 일어난 역기능적 지각 또는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2]. 청년 실업이 가중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로의 진학률이 높아지고[3], 2025년 까지 약 30000명의 간호사를 보충할 것이라는[4] 표면적인 낙관론적 현실과는 달리, 실제로 간호사는 전문직 역할갈등, 전문지식과 기술부족, 의료한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5] 환자 간호와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는 소진, 이직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6]. 이러한 결과는 간호라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과 무관심에 의한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간호사 자신은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문직 삶의 질을 위협받게 된다[7].

전문직 삶의 질이란 남을 돕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로써 긍정적인 측면인 공감만족과 부정적인 측면인 공감피로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공감피로는 다시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로 이루어진다[8]. 공감만족은 일을 통해 타인을 도울 수 있다고 느끼는 즐거운 마음을 의미하고, 소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과부하나 지원체계가 부족한 환경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절망 같은 감정을 말하며,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극심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를 돌보는 전문가가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한다[9]. 간호사에게 전문직 삶의 질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이유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해야 하는 간호사가 삶의 질 저하로 인해 환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결국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8]. 간호사는 돌봄 대상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이 간호사에게 영향을 미쳐 공감피로로 나타나며[10], 이러한 공감피로는 개인의 대처 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몰입 저해

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11]. 특히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간호사는 공감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거리를 둬으로써 공감능력과 객관적 시각 모두를 상실하게 되며 이는 결국 업무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게 되고[12] 결국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까지 간호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용서[13], 수면, 식생활 행위, 신체활동[14] 등이 거론 되어졌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인간 본연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대두되고 있다[15].

인문학이란 인간 행위의 모든 영역에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학문으로[16] 인문학적 소양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문학에 포함되는 역사, 철학, 예술 등의 요소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17]. 간호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대두된 배경에는 의료의 비인간화와 경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로 인한[18] 인간 존중의 피폐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17], 이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학은 자연과학에 치우친 나머지 인문학을 멀리 해왔고, 인문학이 강조된 이후에도 전체 학점 중 8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기에 인본주의를 실천해야 할 간호사에게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19]. 실제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는 자기 자신을 독자적인 인격으로서 인정하게 됨과 동시에 생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며 스스로를 탈바꿈하여 사회적 삶을 실천하게 된다[20]. 그리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을 획득할 수 있고[21], 이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22] 궁극적으로는 전문직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7]. 또한 인문학적 치료가 정신적, 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예방 및 치유하고 인문학 고유의 정체성을 통해 기존의 정산심리 치료와는 다른 치유적의미를 제공한다는[18] 점에서 간호사의 정신적 문제인 직무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7] 인문학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폭력경험[8], 신체적 증상[23], 간호조직문화[24], 감정노동[7], 직무환경[25], 등 간호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요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간호의 소명은 돌봄이고 돌봄의 핵심은 간호사-환자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적 소양과 직무 스트레스가 전문직 삶의 질에 어떤 영

향을 미치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전문직 삶의 질의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고[26] 하위 영역 중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7] 설명하고 있을 뿐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및 전문직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포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P광역시에 소재한 3개의 종합병원에 근무 중인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2.1.9.2 program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는 .15, 예측변수 17개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79명으로 산정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하였다. 효과크기의 설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중회귀분석의 중간효과크기인 .15로 선정하였

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3부를 제외한 21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문직 삶의 질

전문직 삶의 질은 Stamm[27]이 개발한 ProQOL version 5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ubscale version 5)의 한국어판 공개버전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적 영역인 공감만족 10문항, 부정적 영역인 공감 피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감피로는 다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10문항, 소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영역인 공감만족 정도가 높고, 부정적 영역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진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공감만족 .88,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81, 소진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공감만족 .90,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73, 소진 .78이었다.

2.3.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Kim과 Gu[28]가 개발하고 Ahn[2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 관계상의 문제,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 밤 근무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Gu와 Kim이 개발할 당시 Cronbach's α 는 .94였고, Ahn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3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은 Kim[1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개 문항으로 책 읽기 소양, 역사 소양, 문학 및 철학적 소양, 예술적 소양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문학적 소양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따른 개인정보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D병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D-1905- 021-002)을 받은 후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6월 3일 ~ 2019년 6월 14일 까지였고, 연구자는 자료수집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자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절차, 철회 가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서류봉투에 넣어 테이핑 처리 후 연구자가 직접 수거함으로써 익명성 및 기밀성을 유지하였다. 각 설문지는 설문 응답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 후 감사의 표시로 간단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0 program을 이

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 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삶의 질의 차이

Table 1. Humanistic Knowledge and Occupational Str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Humanistic Knowledge				Occupational Stress			
			M±SD	t/F	p	sheffé	M±SD	t/F	p	sheffé
Age	<30	80(36.9)	27.26±8.65	1.70	.185		87.18±9.68	.08	.924	
	30~39	102(47.0)	26.70±8.58				86.91±10.72			
	≥40	35(16.1)	29.89±10.05				87.71±10.72			
Gender	Male	204(94.0)	27.20±8.82	-1.54	.126		89.02±10.32	-.95	.345	
	Female	13(6.0)	31.25±9.87				89.92±10.08			
Marriage	Single	123(56.7)	26.83±8.79	-1.13	.258		86.96±10.09	-.362	.718	
	Married	94(43.3)	28.21±9.04				87.47±10.64			
Religion	Yes	72(33.2)	28.14±9.40	.84	.405		87.83±9.95	.70	.485	
	No	145(66.8)	27.07±8.63				86.79±10.49			
Education	Associate degree ^a	41(18.9)	25.05±8.60	3.80	.024	a<c	88.07±12.13	.21	.811	
	Bachelor ^b	143(65.9)	27.35±8.58				86.95±10.10			
	Master or doctor ^c	33(15.2)	30.70±9.76				86.79±8.86			
Working period (year)	≤5	71(32.7)	27.06±8.37	1.73	.163		85.72±9.77	1.68	.173	
	6~10	72(33.2)	25.93±8.95				88.99±11.29			
	11~15	40(18.4)	27.52±0.06				85.50±8.43			
	≥16	34(15.7)	30.09±10.31				88.11±10.87			
Working department	General	109(50.2)	27.32±8.79	.28	.755		86.73±10.64	1.27	.283	
	Special	64(29.5)	28.05±8.60				86.33±9.32			
	OPD or etc	44(20.3)	26.77±8.88				89.31±10.73			
Working position	Staff nurse	199(43.3)	27.17±8.77	-.34	.163		87.38±10.34	1.16	.248	
	Charge or nursing manager	18(8.3)	30.22±9.92				84.44±9.75			
Duty of night	Yes	123(56.7)	27.34±8.70	.16	.876		86.36±10.61	1.28	.003	
	No	94(43.3)	27.53±9.16				88.16±9.85			
Income (month)	≤300 ^a	59(27.2)	26.98±9.21	6.12	.003	a,b<c	85.93±11.61	.69	.506	
	301~400 ^b	136(62.7)	26.62±8.59				87.76±9.67			
	≥401 ^c	22(10.1)	33.55±7.74				86.54±10.55			
Satisfaction for income	Yes	136(62.7)	28.34±8.53	1.98	.049		85.61±10.16	-2.86	.005	
	No	81(27.3)	25.89±9.30				89.69±10.10			
Satisfaction for nursing	Yes	128(59.0)	27.66±8.40	.47	.642		85.30±9.60	-3.15	.002	
	No	89(41.0)	27.08±9.57				89.78±10.76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204명이고, 남자가 12명이었다. 연령은 30대 이상 40대 미만인 47.0%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56.7%였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33.2%였으며, 최종학력은 학사가 65.9%로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은 5년 초과 10년 이하가 33.2%로 가장 많았고, 근무부서는 일반 병동이 50.2%였고, 일반간호사가 91.7%였다. 밤 근무를 하는 대상자가 56.7%였고, 62.7%가 급여에 만족하고, 59.0%가 간호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문학적 소양은 최종학력(F=3.80, p=.024), 급여(F=6.12,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는 밤근무 유무(t=1.28, p=.003), 급여만족(t=-2.86, p=.005), 간호

만족(t=-3.15,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만족은 나이 (F=11.21, p<.001), 결혼유무(t=-3.63, p<.001), 최종학력(F=6.37, p=.002), 임상경력(F=9.04, p<.001), 직위 (t=-2.71, p=.007), 밤 근무 유무(t=2.21, p=.028), 급여 (t=3.97, p=.020), 급여만족(t=3.28, p=.001), 간호만족 (t=7.63, p<.001)에 따라 공감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연령에서는 40세 미만보다 40세 이상에서, 최종학력은 전문학사와 학사보다 석·박사 이상이 공감만족 관련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경력이 16년 이상일 때, 급여가 300만원 이하 보다 401만원 이상일 때 공감만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Burn out				Secondary traumatic stress			
			M±SD	t/F	p	sheffé	M±SD	t/F	p	sheffé	M±SD	t/F	p	sheffé
Age	<30 ^a	80(36.9)	29.7±6.03	11.21	<.001	a,b<c	29.8±5.54	12.17	<.001	a,b>c	29.3±4.57	1.81	.166	
	30~39 ^b	102(47.0)	31.1±5.25			28.2±4.28				29.2±4.50				
	≥40 ^c	35(16.1)	35.1±5.85			24.9±4.25				27.7±4.45				
Gender	Male	204(94.0)	31.3±5.94	.184	.854		28.2±5.02	-.29	.771		29.1±4.46	1.44	.153	
	Female	13(6.0)	31.0±5.29				28.67±5.35				27.1±5.64			
Marriage	Single	123(56.7)	30.1±6.35	-3.63	<.001		29.6±5.31	4.94	<.001		29.1±4.87	.578	.564	
	Married	94(43.3)	32.9±4.80				26.5±4.00				28.8±4.09			
Religion	Yes	72(33.2)	32.4±6.22	1.98	.049		27.6±5.03	-1.39	.166		29.1±5.11	.201	.841	
	No	145(66.8)	30.7±5.68				28.6±5.00				28.9±4.23			
Education	Associate degree ^a	41(18.9)	29.9±5.82	6.37	.002	a,b<c	29.7±4.59	7.72	.001	a,b>c	28.7±3.98	1.20	.302	
	Bachelor ^b	143(65.9)	30.9±5.72				28.5±4.94				29.3±4.75			
	Master or doctor ^c	33(15.2)	34.4±5.87				25.4±4.89				29.0±4.53			
Working period (year)	≤5 ^a	71(32.7)	30.0±5.98	9.04	<.001	a,b,c<d	29.6±5.31	8.34	<.001	a,b,c>d	29.4±4.27	1.19	.316	
	6~10 ^b	72(33.2)	30.4±5.89				28.7±4.56				29.2±5.04			
	11~15 ^c	40(18.4)	31.4±4.24				28.0±4.95				29.0±3.92			
	≥16 ^d	34(15.7)	35.7±5.55				28.3±5.02				27.7±4.56			
Working department	General ^a	109(50.2)	30.7±6.14	1.13	.325		29.2±5.04	3.96	.020	a>b	29.3±4.83	.80	.449	
	Special ^b	64(29.5)	31.8±5.66				27.1±4.94				28.4±4.00			
	OPD or etc ^c	44(20.3)	32.0±5.64				27.6±4.75				29.00±4.51			
	Staff nurse	199(43.3)	30.9±5.80	-2.71	.007		28.7±4.95	3.89	<.001		29.3±4.44	3.20	.002	
Working position	Charge or nursing manager	18(8.3)	34.8±60.9				24.0±3.76				25.8±4.39			
	Duty of night	Yes	123(56.7)	32.3±5.45	2.21	.028		29.1±5.12	-3.01	.003		29.4±4.59	-1.46	.145
Income (month)	No	94(43.3)	30.5±6.14				27.1±4.66				28.5±4.43			
	≤300 ^a	59(27.2)	30.2±5.52	3.97	.020	a<c	29.0±4.86	5.01	.007	a,b>c	28.5±4.17	3.63	.028	b>c
	301~400 ^b	136(62.7)	31.2±5.86				28.5±5.16				29.5±4.57			
	≥401 ^c	22(10.1)	34.3±6.40				25.2±3.33				26.9±4.69			
Satisfaction for income	Yes	136(62.7)	32.3±5.13	3.28	.001		27.8±4.72	-1.92	.056		29.1±4.24	.45	.654	
	No	81(27.3)	29.6±6.72				29.1±5.42				28.8±5.01			
Satisfaction for nursing	Yes	128(59.0)	33.6±4.36	7.63	<.001		26.1±3.75	-8.67	<.001		28.3±4.23	-2.61	.010	
	No	89(41.0)	27.9±6.18				31.4±4.93				29.9±4.8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을 분석한 결과 나이(F=12.17, $p<.001$), 결혼유무($t=4.94$, $p<.001$), 최종학력(F=7.72, $p=.001$), 임상경력(F=8.34, $p<.001$), 근무부서(F=3.96, $p=.020$), 직위($t=3.89$, $p<.001$), 밤 근무 유무($t=-3.01$, $p=.003$), 급여(F=5.01, $p=.007$), 간호만족($t=-8.67$,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연령에서는 40세 이상보다 40세 미만이, 최종학력은 전문학사 및 학사가 석박사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과 관련하여서는 경력은 15년 이하가 16년 이상보다, 부서는 일반병동이 특수 파트보다, 급여는 400만원 이하가 401만원 이상 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 외성성 스트레스는 직위(F=3.20, $p=.002$), 급여(F=3.63, $p=.028$), 간호만족($t=-2.61$, $p=.010$)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급여가 301~400만원일 때가 401만원 이상 보다 이차 외성성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3.2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정도는 평균 27.4 ± 8.44 이다. 인문학적 소양의 하부요인 중 책읽기 소양은 5.5 ± 2.44 , 역사 소양은 5.0 ± 2.01 , 문학 및 철학적 소양은 15.6 ± 2.44 , 예술적 소양은 6.9 ± 2.43 이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평균 87.1 ± 10.30 이었으며, 전문직 삶의 질의 하부요인 중 공감만족은 평균 31.3 ± 5.91 , 소진은 28.3 ± 5.02 , 이차 외성성 스트레스는 29.0 ± 4.53 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Participant's Degree of Humanistic Knowledge, Occupational Stress,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Variables	M±SD	Range
Humanistic knowledge	27.4±8.44	13-65
Reading	5.5±2.44	3-15
History	5.0±2.01	2-10
Philosophy of literature	15.6±2.44	7-20
Art	6.9±2.43	4-14
Occupational stress	87.1±10.30	56-110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31.3±5.91	12-50
Burn out	28.2±5.02	16-42
Secondary traumatic stress	29.0±4.53	12-49

3.3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은 공감만족($r=.20$, $p=.004$)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진($r=-.15$, $p=.032$)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소진($r=.21$, $p=.002$), 이차 외성성 스트레스($r=.21$, $p=.002$)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만족은 소진($r=-.68$,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소진은 이차 외성성 스트레스($r=.4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Humanistic Knowledge, Occupational Stress,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Variables	1	2	3	4	5
	r	r	r	r	r
1. Humanistic knowledge	1				
2. Occupational stress	.51	1			
3. Compassion satisfaction	.20**	-.01	1		
4. Burn out	-.15*	.21*	-.68**	1	
5. Secondary traumatic stress	.02	.21*	-.02	.46**	1

* $p<.05$, ** $p<.01$

3.4 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 영향 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삶의 질 하부요인 중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공감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결혼유무, 종교유무, 학력, 임상경력, 직위, 나이트 근무 유무, 급여, 급여만족, 간호만족, 공감만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인문학, 소진을 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이들 변수 중 범주형 변수는 더미처리를 한 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인자의 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ston 통계량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007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값 여부를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이상은 없었으며, 잔차 분석을 위하여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도표와 산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Variables		B	SE	β	t	p	Adj.R ²	F	p
Compassion satisfaction	Burn out	-.64	.07	-.54	-9.12	<.001	.451	68.77	<.001
	Satisfaction for nursing	2.09	.69	.17	3.03	.003	.472		
	Working period	2.12	.83	.13	2.55	.012	.485		
Burn out	Compassion satisfaction	-.48	.04	-.56	-12.61	<.001	.451	96.25	<.001
	Secondary traumatic stress	.44	.04	.39	10.02	<.001	.645		
	Satisfaction for nursing	-1.50	.46	-.15	-3.24	.001	.667		
	Marriage	-1.38	.40	-.14	-3.47	.001	.682		
	Occupational stress	.044	.02	.09	2.26	.025	.688		
Secondary traumatic stress	Burn out	.407	.05	.45	7.50	<.001	.206	31.30	<.001
	Income	1.21	.56	.13	2.16	.032	.219		

점도를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만족되어 회귀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8.76, p<.001).

본 연구 대상자의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소진($\beta=-.54$, p<.001), 간호만족의 만족($\beta=.17$, p=.003), 임상경력 15년 이상($\beta=.13$, p=.012)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공감만족을 48.5%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본 연구 대상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소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 결혼유무, 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직위, 야간 근무 유무, 급여, 급여만족, 간호만족, 소진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인문학, 직무스트레스, 공감만족,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이들 변수 중 범주형 변수는 더미처리를 한 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인자의 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ston 통계량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091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값 여부를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이상은 없었으며, 잔차 분석을 위하여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와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만족되어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6.25, p<.001).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공감만족($\beta=-.56$, p<.001),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beta=.39$, p<.001), 간호만족의 만족($\beta=-.15$, p=.001), 기혼($\beta=-.14$, p=.001), 직무 스트레스($\beta=.09$, p=.025)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소진을 68.8%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본 연구 대상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직위, 급여, 간호만족, 스트레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소진을 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이들 변수 중 범주형 변수는 더미처리를 한 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이거나 분산팽창인자의 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Waston 통계량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228로 2에 가까워 오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이값 여부를 Cook's Distance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이상은 없었으며, 잔차 분석을 위하여 회귀표준화 잔차의 정규 p-p도표와 산점도를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만족되어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1.31, p<.001).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는 소진($\beta=.45$, p<.001), 급여 301~400만원($\beta=.13$, p=.032)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고,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21.9%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과 직무스

트레스 및 전문직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인문학적 소양 정도는 평균 27.43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Ha와 Jeon[30]의 32.29점 보다 낮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교육수준 정도가 Ha와 Jeon[30]의 연구에서 석사 이상이 16.1%이고 본 연구에서는 15.2%인 것으로 볼 때 석사 이상이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21]의 연구에서는 2.67(6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4.71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왔다. 간호 대학생들은 임상현장의 간호사들 보다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결과로 보여진다. 그리고 최근 간호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31]의 인증기준에 인문사회 과목을 최소 8학점 이상, 교양 과목을 최소 2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임상 간호사에 비해 간호 대학생이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직무스트레스는 평균 87.1점으로 나왔으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79점이다. 이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g[5]의 3.84점과 비슷한 수준이고,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2]의 연구 3.47점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임상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병원에 근무하는 타 직종 보건인력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보건인력과는 달리 간호사 대부분이 생체리듬이 불규칙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태움 문화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 스트레스는 곧 간호인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6] 임상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3교대 간호사의 신체리듬을 보존할 수 있는 병원 자체의 개선 노력과 사회적으로 태움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같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7] 연구의 3.24점 보다 직무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요양병원도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지지만 종합병원과는 달리 밤 근무 전담 간호사를 따로 두고 있고 환자들의 중증도가 종합병원보다 낮으며 환자 대부분 현 질환의 유지 및 재발을 위한 환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하위영역인 공감만족은 31.3점, 소진은 28.2점,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29.0점이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eon과 Ha[23]의 연구 결과인 공감만족 30.52점, 소진 29.66점,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29.59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7] 연구에서는 공감만족 30.49점, 소진 20.62점,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20.62점으로 부정적 영역인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본 연구 및 Jeon과 Ha[23]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요양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는 달리 입원의 목적이 질병 치료가 아닌 유지이기 때문에 환자의 간호 요구도가 종합병원보다 높지 않고, 요양병원의 특성상 보호자가 상주하는 것이 아닌 요양보호사에 의해 간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병원보다 민원제기 및 폭언 노출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임상간호사들은 긍정적 영역인 공감만족은 중간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높지 않다. 그리고 부정적 영역인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중간 이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고객을 응대하는 직업군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폭언, 욕설 등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강화되었다. 간호사도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는 직업인 만큼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안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중재방안 모색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만족은 나이, 결혼유무, 최종학력, 임상경력, 직위, 밤 근무 유무, 급여, 급여만족, 간호만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7]의 연구에서도 나이, 결혼유무, 임상경력, 직위, 근무형태, 근무 만족도,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기혼일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힘든 간호 업무에 있어 의지할 대상이 있으면 그만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32] 이를 통해 공감만족이 올라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기혼일수록 공감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혼을 기피하는 요즘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제시해준다[32]. 40대 미만보다 40세 이상에서 공감만족 높았고, 임상경력 또한 15년 이하보다 16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공감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와 경력이 쌓일수록 간호 업무에 대한 유동적인 노하우를 습득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환자에 맞는 심미적 지식을 통

한 개별 간호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공감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급여가 401만원 이상 일 때가 300만원 이하 일 때보다 공감만족이 높고, 급여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다는 것은 임금수준이 고강도 업무인 환자를 간호함에 있어 적절한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진은 나이, 결혼유무,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 직위, 밤 근무 유무, 급여, 간호만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Lee[24]의 연구에서 나이, 결혼유무, 최종학력, 임상경력, 근무부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7]의 연구에서 나이, 결혼유무, 임상경력, 급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병원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삶의 질을 연구한 Lee[33]의 연구에서 연령, 결혼유무, 직무만족도에 따라 소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사후 검정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소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간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져 더 많이 소진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직위에서는 일반간호사가 책임간호사 혹은 관리자보다 소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하지 않는 간호사보다 소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적으로 일반간호사가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응대하고[34] 책임 및 관리자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평을 일반간호사들이 받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밤 근무의 경우 책임 및 관리자는 제외되고 일반간호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소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급여에 있어서는 급여가 적을수록 소진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여가 많을수록 소진으로 인한 감정적 상처를 소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직위, 급여, 간호만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Lee[33]는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만족감에 따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대상자가 간호사는 아니지만 종합병원 종사자들의 전문직 삶의 질을 연구한 Park[32]은 직위가 낮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

맥상통 하였다. 병원에서의 직위가 낮을수록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34]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자주 노출이 되고[8] 이러한 외상성 경험이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23] 병원 내 이차 외상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급여에 따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급여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다소 이질적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급여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에 차이가 있고[35], 직무스트레스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상관관계가 있음[7]을 유추해볼 때 급여에 따른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도 연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밤 근무 유무와 간호만족도는 공감만족,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 중 가장 주된 요인 두 가지 중 하나가 근무표이고 특히 밤 근무는 이직의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36] 적정 수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이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문학적 소양, 직무스트레스, 전문직 삶의 질의 하부요인인 공감만족,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이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아지고, 인문학적 소양이 낮을수록 소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Ha와 Jeon[30]은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이 낮을수록 감성지능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감성지능이 낮을수록 소진을 많이 느낀다[37]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Hong[38]은 인문학적 소양과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Lee와 Kim[39]은 회복탄력성과 공감만족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간접적으로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Kim과 Kim[7]은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스트레스와 전문직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고, Kim 등[25]도 비록 대상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본 연구와 다르지만 직무스트레스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문학적 소양이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아지고, 공감만족이 높을수록 소진을 덜 느끼며, 소진을 덜 느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

레스 정도가 낮아진다는 점과 인문학적 소양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고[2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공감만족이 높아지며[38], 공감만족이 높아질수록 소진 감정이 낮아지고[23], 소진이 낮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문학적 소양이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3교대를 하는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하여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이 있는 음악회, 전시회, 문화재 관람 등과 같은 문화 활동을 영위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30]. 그러므로 병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3교대 근무자의 여가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임상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하위요인 중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 요인은 소진, 간호만족, 임상경력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7]의 연구에서 근무병동 만족도가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하였고, 중앙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39]의 연구에서도 임상경력이 공감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는 간호 업무에 만족감이 높을수록 타인을 돕고자하는 공감만족이 높아지고[7], 임상경력이 높아질수록 경험과 연륜이 쌓여 근무 상황에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공감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긍정적 분위기의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소진도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진은 유의한 예측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7,23,24,25,34,39]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 하위요인 중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 요인은 공감만족,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간호만족, 기혼,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한 Leel[33]의 연구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고,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연구한 Choi와 Han[40]의 연구에서도 직무 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간호업무만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소진이 낮아진다[40]는 것은 결국 임상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잘 대체해 나가는 것이 소진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직무 스트레스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지고[2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지며[22], 직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소진이 낮아진다[40]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생활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증진이 궁극적으로 소진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간호사는 3교대라는 근무특이성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할 기회가 제한되므로 병원차원에서의 독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기혼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에서 결혼유무와 소진의 관계는 찾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은 부부간 정서적 지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증진 시켜줌으로써[32] 소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임상간호사의 하위요인 중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 요인은 소진과 급여로 나타났다.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급여가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선행연구는 찾기가 힘들어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월수입에 따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25]에서 경제적 요인이 심리상태에 관여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간호라는 직업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해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높아지고[8] 이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까지 높아지지만[7], 음악회와 전시회 같은 경제활동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통해 감성지능을 키우게 되면[30] 감정노동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도 낮아지고[41]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절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7]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재평가와 간호학에의 인문학 적용을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소진은 공감만족과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전문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느끼는 소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증재와 예방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소진과 인문학적 소양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호사들에게 취약한 인문학 교육 활성화를 통한 소진 극복을 통해 공감만족을 회복하고,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도 낮추며 궁극적으로 전문직 삶의 질을 높여야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과 직무스트레스 및 전문직 삶의 질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인문학적 소양은 공감만족, 소진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직무스트레스는 소진,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공감만족은 소진과, 소진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진, 간호만족의 만족, 임상경력이며,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공감만족,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간호만족, 기혼,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진과 급여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전문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관적 설문에 의거한 단순 서술적 조사연구이고, 한 개 광역시 내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호사를 편의 표본추출 하였기에 제한된 표본에 의해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병원 규모 및 지역의 다양화를 통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임상 간호사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전문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제안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임상 간호사의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García-Herrero, J. R. Lopez-Garcia, S. Herrera, I. Fontaneda, S. M. Báscones, M. A. Mariscal,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and Social Support on European Health Professionals' Occupational Stress: A Demands-Control-Social Support-Recognition Bayesian Network Model", *BioMed Research International*, Vol.2017, No.1, pp.1-14, Nov 2017.
DOI: <http://dx.doi.org/10.1155/2017/4673047>
- [2] E. J. Kim, "Influence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in Caregiver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Vol.25, No.1, pp.77-98, Jun 2015.
- [3] M. J. Kim, K. J. Kang, "The Influence of Calling, Work Values and Adaptation Resources on the Nursing Students' College Adjustment", *The Korea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28, No.3, pp.667-677, Jun 2016.
DOI: <http://dx.doi.org/10.13000/JFMSE.2016.28.3.667>
- [4] Y. H. Oh, "The Future Requirements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vol.16, No.3, pp.139-161, Dec 2010.
- [5] H. S. Jeong, "The effect of Empathy on the Job Stress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6, pp.3911-3918, Jun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11>
- [6] O. Arrogante, E. Aparicio-Zaldivar, "Burnout and Health among Critical Care Professionals: The Mediational Role of Resilience",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Vol.42, pp.110-115, Oct 2017.
DOI: <http://dx.doi.org/10.1016/j.iccn.2017.04.010>
- [7] H. J. Kim, H. Y. Kim,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9, No.3, pp.290-301, Jun 2017.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7.29.3.290>
- [8] Y. H. Bae, T. W. Lee, "Relationship of Experience of Violenc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for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21, No.5, pp.489-500, Dec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5.489>
- [9] B. H. Stamm, "The Concise ProQOL manual, 2nd ed, Pocatello, ID: ProQOL.ogr, pp.1-78, 2010.
- [10] B. Lombardo, C. Eyre, "Compassion fatigue: A nurse's primer", *The Online Journal of Nursing*, Vol.16, No.1, Manuscript 3, Jan 2011.
DOI: <http://dx.doi.org/10.3912/OJIN.Vol16No01Man03>
- [11] C. Y. Fu, H. M. Chen, "Compassion fatigue: A concept analysis", *Hu Li Za Zhi The Journal of Nursing*, Vol.58, No.2, pp.98-103, Apr 2011.
- [12] D. A. Boyle, "Countering compassion fatigue: a requisite nursing agenda", *Th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Vol.16, No.1, Manuscript 2, Jan 2011.
- [13] J. H. Choi, Y. S. Tae, J. E. Heo, Y. S. Kim, "The relationship among Anger-in, Forgiveness, and Quality of Lif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2, No.1, pp.78-86, May 2016.
DOI: <http://dx.doi.org/10.14370/jewnr.2016.22.1.78>
- [14] A. R. Lee, S. J. Lim, G. H. Han, "Association of Sleep, Dietary Behaviors and Physical Activity with Quality of Life among Shift-work Nurse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19, No.4, pp.252-257, Nov 2017.
DOI: <https://dx.doi.org/10.7586/jkbns.2017.19.4.252>
- [15] C. H. Lee, Let's improve our quality of life with humanities courses [internet]. The Segye Times, c2018 [cited 2018 May 14], Available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4005178> (accessed Jul. 30, 2019)

- [16] C. Dellasega, P. Milone-Nuzzo, K. M. Curci, J. O. Ballard, D. G. Kirch, "The humanities interface of nursing and medicine", *J Prof Nurs*, Vol.23, No.3, pp.174-179, May 2007.
DOI: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7.01.006>
- [17] Y. I. Kim, *The study of resilience of the gifted in science: related with humanistic knowledge*,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pp.7, 2014.
- [18] J. Y. Ha, S. Y. Jeon, J. W. Cheon, "Concept analysis of humanities knowledge: Nursing appli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pp.937-947, Jan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29>
- [19] M. H. Park,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of Korean Humanity care Nursing Education", *Korean J Med Ethics*, Vol.16, No.2, pp.194-215. Aug 2013.
- [20] S. K. Paek, "What is the Humanities?", *Research of philosophy*, Vol.73, pp.99-116, Feb 2000.
- [21] S. K. Hong, "Influence of Humanistic Knowledge and Resilience on Communication skills in Nursing student", *Korean J Health Commun*, Vol.12, No.2, pp.189-200, Dec 2017.
DOI: <http://dx.doi.org/10.15715/kihcom.2017.12.2.189>
- [22] Y. S. Baek, Y. H. Jang, Y. J. Kim, "The Effects of Resilience on Job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BWF", *Korea Business Review*, Vol.32, No.3, pp.1-19, Jun 2017.
DOI: <http://dx.doi.org/10.23839/kabe.2017.32.3.1>
- [23] S. Y. Jeon, J. Y. Ha, "Traumatic Event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Symptoms among Emergency Nurses", *Korean J Adult Nurs*, Vol.24, No.1, pp.64-73, Feb 2012.
- [24] Y. B. Lee, H. K. Lee, "The Convergence Factors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Nurse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1, pp.491-500, Nov 2018.
DOI: <http://dx.doi.org/10.15207/JKCS.2018.9.11.491>
- [25] J. H. Kim, J. E. Lee, G. S. Kim, "Factors related to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7, No.2, pp.109-120, May 2018.
DOI: <http://dx.doi.org/10.5807/kiohn.2018.27.2.109>
- [26] D. Silva, A. Moraes, "Occupational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Paideia*, Vol.26, No.63, pp. 63-70, 2016.
DOI: <http://dx.doi.org/10.1590/1982-43272663201608>
- [27] B. H. Stamm, "The Concise ProQOL Manual, 2nd Ed. 2010. Available From: <http://www.proqol.org>. (accessed Apl., 24, 2019)
- [28] M. J. Kim, M. O. Gu,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28-37, 1984.
- [29] M. K. Ahn, "The effect of nurse's job stress on health practice behavio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2, 2003.
- [30] J. Y. Ha, S. Y. Jeon, "The Effects of Humanistic Knowledge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3, pp.264-273, Aug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3.264>
- [31]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es' core competencies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2012; Retrieved Jan. 26. 2017;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HyAdmin/uplod/goodFile/120121127182143.pdf>
- [32] J. W. Kim, Y. O. Kim,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Manufacturing Industry Workers: Focusing on Sub-contractual Workers of Ulsan's Vehicle Industry", *Kornal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8, No.2, pp.94-103, May 2019.
DOI: <http://dx.doi.org/10.5807/kiohn.2019.28.2.94>
- [33] Y.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University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pp.8-11, 2019.
- [34] B. Y. Park, *The Relationship of Emotional Labor with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General Hospital Personne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p.9-26, 2012.
- [35] M. Kwon, S. L. Kim, "The Job Stress and Presentism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in Workplace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19, No.2, pp.159-169, Nov 2010.
- [36] H. N. Lee, S. Y. Lee, M. A. Lee, "A Study of Nurses' Job Satisfactio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5, No.2, pp.91-101, Dec 2009.
- [37] S. A. Ahn, C. J. Yea, D. M. Yeum, "The Impact of Nurse Job Demands, Job Resources, Emotional Labor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Burnou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7, No.4, pp.25-43, Nov 2011.
DOI: <http://dx.doi.org/10.15715/kihcom.2017.12.2.189>
- [38] S. N. Lee, J. A. Kim, "Analysis of Research on Compassion Satisfaction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599-609, Sep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9.599>
- [39] S. Kim, J. H. Kim, J. Y. Park, E. Y. Suh, H. J. Yang, S. Y. Lee, Y. S. Lee, M. J. Jeon, S. H. Lee, K. O. Kim, "Oncology Nurses'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in a Tertiary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6, No.3, pp.145-155, Dec 2010.
- [40] K. J. Choi, S. S. Han, "The Influence of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Clinical Nurse's

Burnou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9, No.1, pp.55-61, May 2013.

- [41] J. H. Kim, Y. M. Lee, H. Y. Joung, H. S. Choo, S. J. Won, S. Y. Kwon, H. J. Bae, H. K. Ahn, E. M. Kim, H. J. Jang, “Effects of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Job Stress in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Fundam Nurs*, Vol.20, No.2, pp.157-167, May 2013.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2.157>

박 선 자(Seon-Ja Park)

[정회원]



- 2000년 11월 ~ 2010년 3월 : 동 의의료원 주임간호사
- 2010년 6월 ~ 현재 : 동남권원자 력의학원 간호사
- 2017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과정 중)

<관심분야>

성인간호, 기본간호

김 지 원(Jee-W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2017년 2월 : 부산성모병원 간호사
- 2017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부산가톨릭 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과정 중)

- 2019년 9월 ~ 현재 :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만성질환